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2024 AUTUMN | VOL.15

춘천도시재생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읓치읓 15호

발행호 15호 | **발행일** 2024년 09월 10일 | **창간일** 2024년 03월 20일 |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033-245-5264) | **협조** 춘천시

uris.chuncheon.go.kr



Special

도시_재생Play_list 1.zip

스트리트리포터 핫데뷰

조금 더, 조운동 | 조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사진전
천주교 춘천교구 무료급식소 <한삶밥집> | 모두가 한삶을 산다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4 AUTUMN **Vol.15**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이원일 作 <춘천의 추억, 요선터널>

발행호 통권 15호
발행일 2024년 09월 10일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T.033-261-5364)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4)

FOCUS 춘천

04
특집
둠칫둠칫 도시-재생PLAY-LIST 1.zip
스트리트리포터 핫데뷰

14
조양운교
조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사진전
<조금 더, 조운동>
조양·운교 도시재생 예비사업
마을홍보 역량강화

22
조운소양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2024 녹색교통 해커톤

30
약사명동
흙으로 빚는 세상, 약사는 전시중
테라코타 2차 교육 프로그램

LOVE 로컬

36
춘천덕질(교동)
맛도 있고 멋도 있고!
우리 동네 속 작은 유럽

44
춘천덕질(약사명동)
죽림동성당
<한삶밥집>



이 골목의 나이가 칠순이 넘었네 by송정희

KEYWORD 도시재생

52
도서 리뷰
천천히 재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이야기
#도서리뷰
#천천히재생
#도시는생명체다



아워테이스트



스트리트
리포터

도시의 이야기를
포착하고
기록하는 사람들

@adcook_mkt
@g_ogry
@_yong.film_
@differ.heo
@ilesticiavecmoi
@wez030
@chaeheemun
@samaksan
@ppt_09_so
@edi_torj
@vike270327
@cc_masil

&
@soyang_hada
@uris_chuncheon

도시_재생Play_list 1.zip

글 이경은 코디네이터(춘천시) **인터뷰** 윤한(소양하다) **사진** 스트리트리포터

스트리트리포터 핫데뷰
STREET REPORTER



발로 뛰겠소.

이 광고 카피를 아시나요?
13년 전 KT가 쏘아 올린 광고 카피입니다.

고객 만족, 발로 뛰겠소. do- do- do- 올레!

리듬에 맞춰 [발]이라는 글자가 개수와 영역을
확장해가며 화면을 가득 채웠었죠. 사회초년생 시절
뇌리에 깊이 박혔던 이 광고가 '도시재생 SNS 홍보단'을
기획하면서 자주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놨습니다.
제가 발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닌가, 눈(SNS)인가?)

툭 털어놓자면, 도시재생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센터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시재생에서 가장 재미난 요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스트리트
리포터]를 기획했습니다. [스트리트리포터]가 거리의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재생 이야기를
발견해주길, 그리고 그 이야기를 멀리까지
데려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트리트리포터]는
[소양하다]와 함께합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스트리트리포터]는 거리를 누비며 도시의 이야기를 담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반짝반짝한 분들로만 모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이야기보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이야기 1묶음]에 리듬감을 한스푼 얹어
[도시-재생Play-list 1.zip]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 **사업명** 춘천도시재생 SNS홍보단 운영
- **홍보단명** 스트리트리포터
- **활동기간** 2024.07. – 2024.11.
- **계정** 인스타그램 @uris_chuncheon

Interview .

소양하다



안녕하세요! **소양하다** 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개인의 가치 있는 경험을
자신만의 언어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Q. 도시를 기록하는 이유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도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이나 생활
양식, 역사/문화적 특성이 사라지곤 합니다.
도시기록은 이러한 변화를 아카이빙하고 보존함으로써
그 도시만의 정체성과 자산을 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문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역시 도시의 한 시점, 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요. 이런 기록들이 결국 도시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에게 **도시 기록은 도시와 사람의
상호작용이자, 공유 기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Q. 도시를 잘 기록하는 노하우

관찰하고, 생각하고, 남기는 것...까지는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요(웃음). 노하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변방의 디테일**'에 집중합니다. 이를테면 **사진 속
포커스가 맞춰진 피사체뿐만 아니라 배경의 동상, 나무의 높이,
먹고 있는 음식의 브랜드, 티셔츠의 캐릭터 등에 집중해요.**
텍스트로 된 기록 또한 마찬가지예요.
슥- 지나갈 수 있는 단서들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들여다보고,
찾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열려요. 그걸 다시 하나의 맥락으로
풀어내면 기록 당시의 생활상이나 가옥구조, 문화적 배경,
독특한 사건 등을 찾아낼 수 있어요.



Q. 스트리트리포터, 앞으로의 방향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선발된 열두분이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더불어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경은 코디네이터님도
리포터들의 콘텐츠를 다시 한번 편집해서 센터만의 색깔로 올려주고 계신답니다.
1차로 제작된 콘텐츠가 한번 더 편집되고, 확산하는 것을 보니 기뻐요.
남은 기간 동안 저희도 열심히 운영하고, 이 기록을 다시 또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그땐 그랬지.'라며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스트리트 리포터〉들의 아카이빙을 하고 싶어요.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MP3를 재생했을 때,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 그 시절의 '나'로
금세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차근차근 도시도 재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첫번째 멘토: 춘천문화원 김헌 학예연구사님
"도시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공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 아카이빙을 위하여 그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건축미, 역사성 그리고 집단기억!"



두번째 멘토: MS투데이 권소담 기자님
"취재 전 사전 조율과 자료 수집은 기본입니다. 취재를 가기 전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야 해요. 현장에는 내 그림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재미있는 것을 얹으러 가는 것이죠."



춘천의 추억, 요선터널

Reporter
이원일

냉방 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요선터널은 춘천 시민들의 피서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된 터널은 안전 문제로 인해
1994년 결국 철거되었고, 춘천의 풍경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철거되었지만,
춘천의 성장과 함께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이자
여러 사람의 추억이 담겼던 터널이 사라지는 것에
춘천 시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춘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 조운동

- **주소**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08 좌측동 1층
- **운영시간** 12:00 ~ 19:00 (주말 휴무)
- **대표메뉴** 수제청 레몬에이드

마을과 사람을 잇는 구름다리 카페 조운동

Reporter **백준용**

카페 입구에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반겨준 '조운동 걷기 지도'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주병진의 소설 '소주 한 잔'에서 유래했다.

주병진의 소설 '소주 한 잔'에는 '제임스 딘'이라는 카페가 나온다. 이 카페의 특징은 간판이 아닌 입구에 카우보이 모자를 설치한 것인데, 이는 카우보이 모자가 가게의 상징이 되고, 카페가 사람들의 약속 중심지가 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과거 지도 디자인을 많이 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최지관 대표와, 활기를 잃던 동네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방법을 생각하던 박한종 대표가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입구의 '조운동 걷기 지도' 이다.

또한 두 사람은 이곳이 단순히 카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을회관이자, '조운동 걷기 지도'로 인하여 찾아온 여행자들이 머무르며 여행계획도 잡거나 서로 여행코스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안내소 역할도 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마을에 활기를 더해주도록 하였다.

※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춘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건축의 1세대 건축가 故김수근님의 건축물

Reporter **오현주**

79년에 지어진
(구)어린이회관,
(현)KT&G 상상마당 춘천은
자연과의 조화,
공간 구조의 재미,
故김수근 건축가가 지향하는
인간을 위한
따뜻한 건축의 대표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어요.
지금도 공연과 문화로 접근이 용이한
이곳은,
춘천 시민이라면 추억의 한 페이지를
그릴 수 있는 향수의 장소이기도 하죠.





KT&G 상상마당 춘천

"벽돌이 지닌 조소성은 무한히
인간화되는 과정을 상징하지.-김수근"

김수근님은 건축을
'빛과 벽돌이 짓는 시'라고 표현했죠.

이후 지어진 향토공예관과
신용보증기금도 80년대 현대 건축물의
유산으로, 붉은 벽돌로 하나하나 올곧이
쌓아 올린 김수근 건축가의 후기 작품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답니다.

이 공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나요?



신용보증기금

※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춘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사천 복개사업과 풍물시장

Reporter **전영호**

1989년 처음으로 약사천 복개장소에
문을 열었던 춘천 풍물시장

시내 일원의 노점상들과 떠돌이
행상들을 모아 약사천에 집단 정착시켜
시장을 형성한 것이 춘천 풍물시장의
시작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명동과
함께 춘천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이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약사천 복원 정책에 따라 약사천의
풍물시장은 장소를 옮겨 2010년 11월
온의동 복선전철 고가 철로 밑으로
이전하였다.

도시의 변화 흐름에 따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 춘천 풍물시장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한 풍물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춘천
풍물시장, 한번 방문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1980년대 약사천의 모습
1980년대 초, 춘천시는 도시미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약사천을 콘크리트로 덮었다. 1989년에는 노점상을 이전한 풍물시장이 약사천 위에 자리 잡으면서,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약사리고개, 망대마을로 이어지는 인구 밀집지역이 탄생하였다.
* 사진 출처: ⓒ 춘천시 봄내 소식지 vol.325(2018. 2.)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352-24
- **운영시간** [상설 직거래장터] 4월~11월 (6시부터)
  [민속오일장] 2일, 7일
  [야시장] 금,토,일 운영
  (3~5월: 18~24시 / 6~10월: 19~24시)

전통과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고가 밑에 자리잡은 상점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메뉴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막걸리에서 하이볼까지 떡갈비에서 양코치까지, 넓어진 선택의 폭은 풍물시장을 찾는 이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춘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넘어, 약사동 망대

Reporter **윤기선**

1909년 3월 경성감옥 춘천분감으로
개소한 춘천 교도소.
망대는 춘천 교도소가 잘 보이는
약사리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탈옥수와 화재를 감시하는 장소였다.
1981년 춘천 교도소가 동면 신촌리로
이전하면서 마을의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화재 경보, 민방위 훈련 경보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리를 지켜봐 왔던 망대가
사라지기 전에 기억 속에 남겨보자.

육림고개, 왜 육림일까?

Reporter **위지영**

육림고개를 매번 다니면서 드는 생각 하나.
'육림은 어떤 의미일까?'
춘천 육림고개는 원래 '미가리고개'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워낙 육림극장이 유명한
터라 자연스럽게 고개 이름도
'육림고개'로 변했다고 합니다.
춘천 지역에 '육림'이란 상호가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춘천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했던 향토기업인 '육림기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춘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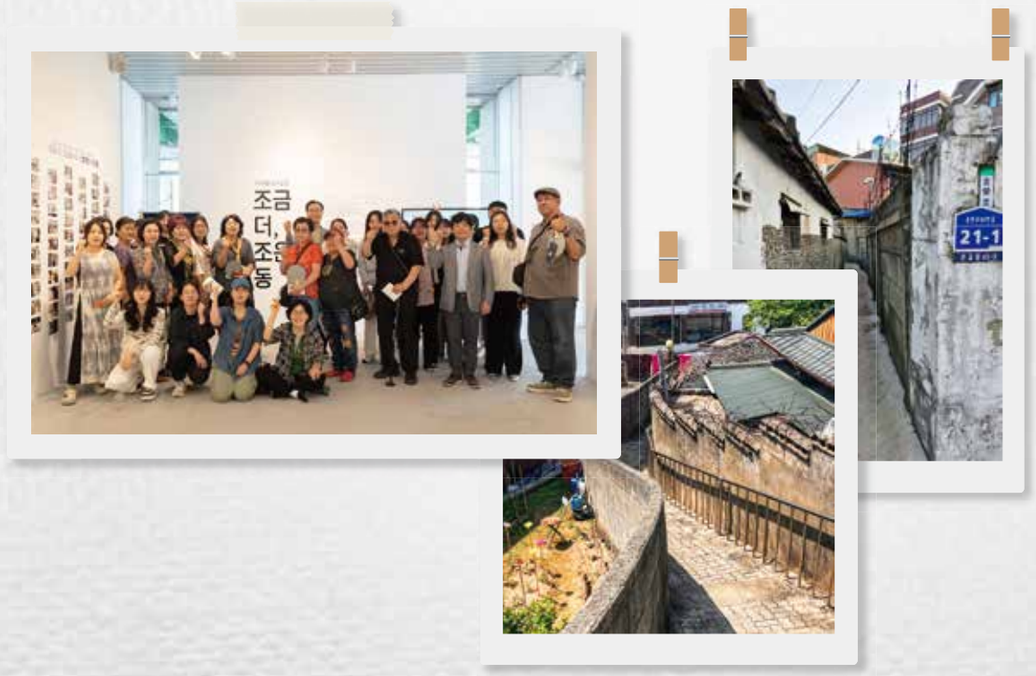
지금은 생각보다도 더 잘 활동해주고 계신 우리 [스트리트리포터] 덕에 과장을 조금 보태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스트리트리포터]의 힘찬 발걸음이 도시재생 지역 곳곳에 바지런히 새겨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스트리트리포터]의 모든 콘텐츠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 (@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양·운교 도시재생 예비사업 마을 홍보 역량 강화

조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사진전

조금 더, 조운 동

글 김보희 코디네이터(춘천시) **협조** 인터뷰 참여자, 사진·자료의 출처[안녕하는 사이]



| 사업명 | 조양운교 마을 홍보 역량강화교육
| 기 간 | 2024. 04. 11. ~ 2024. 06. 30.
| 장 소 | 조운소양 현장지원센터 회의실, 남춘천역 문화공간 '역'
| 내 용 | 마을 홍보를 위한 주민 및 청년 사진, 영상 교육 및 성과물 전시회



사진전에 방문한 육동한 시장님



관람객

조양·운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마을 홍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과 전시회 '조금 더, 조운'이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남춘천역 1층 문화공간 '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운동에서 거주하는 60~70대 주민들의 시선에서 보이는 조운동과 새로운 시선에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조운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전시회가 진행되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주민들의 시선

조운동을 바라본 주민들의 시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조운동은 춘천의 중심지로 가장 먼저 번화했다가 도시계획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쇠퇴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조운동의 이미지가 '오래된 마을', '낙후된 곳', '개발이 필요한 동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홍보 교육을 통해 마을의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겐 낙후되고 오래된 마을로 그려지던 지역의 이미지가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멋이 있는 동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설명하는 고영임 통장님

"이 골목의 나이가 칠순이 넘었네"

송정희 통장님



70년 동안 처음 그 모습 그대로인 집 앞 골목길의 모습이 이전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기만 했다던 송정희 통장님은 사진전을 준비하며 내가 사진 찍은 동네의 모습 중 가장 시선이 많이 갔던 곳이 바로 70년 된 집 앞 골목길이라고 하시며 내가 나이를 먹는 것 같이 이 골목도 나와 함께 세월의 흐름을 겪고 있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송정희 통장님의 시선에서 보이는 70년 된 골목길은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는 골목길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골목의 나이가 칠순이 넘었네 by송정희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조운동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이는 조운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청년들이 생각하는 조운동의 이미지는 '거쳐 가는 동네'였습니다. 후평동, 우두동, 장학리로 가기 위해 버스 환승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곳이 조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환승만 하고 지나가 버렸던 동네를 청년들은 어떤 시선으로 담았을까요?



석명숙 통장님

"엄마, 오늘 또 어디 가세요?"

매일 지나다니는 우리 집 담벼락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던 석명숙 통장님. 담벼락에서 딸기가 자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딸기 때문에 담벼락에 눈길이 가셨는지 여쭤보니 "여기 좀 봐, 여기 우리 딸기가 있잖아!" 하시며 사진 속 담벼락에 강아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딸기는 과일이 아니라 통장님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의 이름이었답니다.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우리 딸기가 이렇게 담장에 올라가서 내가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니 시선이 안 갈 수 없겠지?"하고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집 앞이 특별한 이유는 나를 반겨주는 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엄마, 오늘 또 어디가세요 by석명숙



사진전 단체사진

장은정님



“작은 행운”

현수씨는 운교동 신한은행 앞 복권판매점에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조운동 언덕길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명당자리 복권방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마음속 기대감을 품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며‘명당자리 복권방의 기운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작은 행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생각을 품는다고 합니다.



작은행운 by장은정

김민경님



“타임캡슐”

민경씨에게 조운동은 타임캡슐입니다. 어렸을 때 지나다니던 골목길이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조운동은 지나간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합니다.



타임캡슐 by김민경

‘조금 더 조운동’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조운동은 오래된 동네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가 홍보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둘러보니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동네의 모습들이 이제는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운동의 홍보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조운동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조운동 주민들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 녹색교통 해커톤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글/사진 성현아 코디네이터(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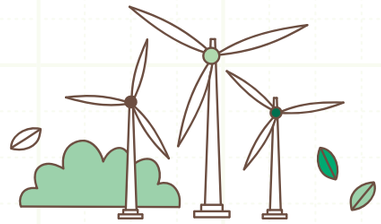
사업명 2024 녹색교통 해커톤
장 소 조운웰컴센터
기 간 2024. 06. 05.~06. 06.
내 용 춘천 원도심 중심의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해커톤 운영



춘천의 중심인 조운동 일대는 원도심 상권(새명동·요선동·지하상가·옥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강원도청, 춘천시청 등) 및 금융기관, 상업 지구가 밀집하여 있으며 여러 단체, 기관들의 사무실이 입지하고 있어 춘천의 핵심적인 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 부도심의 발전과 주거환경의 변화 및 자동차 증가 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의 문제 등으로 권역 내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류시간 또한 짧아지는 다양한 문제점이 최근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권역의 활성화 실현을 위해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교통 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총칭하는 *녹색교통 활용을 제안하고, '원도심 권역으로의 편의성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녹색교통을 활용하여 도출해보자'를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박 2일간 조운 웰컴센터에서 진행된 2024 녹색교통 해커톤은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춘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토박이'학생들부터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해커톤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색교통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 체계

＊＊해커톤

직원, 학생, 일반인 등의 참가자들이 모여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벤트



먼저, 해커톤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님의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제로 적용하며 새롭게 변화해나간 도시 교통 혁신 실험(9유로 티켓·차 없는 원도심·코로나 레인 등)의 사례들과 어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 설득시킬만한 가치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난해한 주제일 수 있는 녹색교통과 왜 해커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기조강연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는 ‘팀 빌딩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서로 인사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진 후 팀별로 초기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상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정한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보는 해커톤 팀별 활동으로 세분의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결과물까지 만들어 내는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생각하는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팀 노포 (대상)

- **아이디어명** 포장마차 거리
- **실행계획**
  - 종로 3가의 노포 거리 같이 요선동에 포장마차 거리를 만들어 젊은 층 유입시키기
  - 골목길 차량 정리
  - 개인 이동수단 주차 구역 확보
  - 00시 심야 전기버스 운행
- **기대효과**
  - 요선동 상권 활성화
  -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증가 예상
  - 기존 상권 활용으로 높은 실현가능성
  - 시민들의 녹색교통 이용 증가 및 인식 개선





〈고려사항〉
· 숙박 업소 주차장
· 인성병원 구급차

대상의 명예를 안게 된 1팀의 ‘포장마차 거리’아이디어입니다. 요선동이라는 동네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권을 연계해 보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상권 이외에도 녹색교통 이용의 계획까지 놓치지 않았던 팀이었습니다.

2팀 해커토너

- **아이디어명** 춘천시티투어
- **실행계획**
  - 기존 시티투어 패키지에 조운동 코스 추가
  - 조운동 내에서 스탬프 적립을 통한 상권 활성화
  - 스탬프 적립 후 춘천 팸플릿과 명물 닭갈비 구현 인형 제공
- **기대효과**
  - 조운동 상권 활성화
  - 알뜰한 여행을 통해 향후 재방문율 높이기
  - 시티버스 이용으로 관광객 주차 문제 해소
  - 닭갈비 쿠션을 통해 춘천 홍보효과 증대

기존의 춘천 시티투어에 조운동 코스 추가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던 2팀! 단순히 시티투어에 조운동 상권 추가가 아닌, 조운동 스탬프 투어와 빠질 수 없는 닭갈비 인형이라는 관광상품까지 더했답니다. 시티투어를 이용하게 된다면 관광객의 주차 문제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3팀 3명 어디갔죠

- **아이디어명** 대한외국인 조운동 유입
- **실행계획**
  - 대한외국인 숙박시설 유치
  - 한국 문화 체험 공간 개설
  - 학교 연계 한국 문화체험 운영
  - 대한외국인의 날 지정 운영
  - 고국 문화 공간 개설
  - 조운동 자전거 활성화 서버 시 연계하여 쿠폰
- **기대효과**
  - 대한외국인 타운 형성으로 이민자들의 증가
  - 외국인 인프라 형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모객

조운동과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조합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던 3팀입니다. 춘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 또한 무시할 수 없죠. 대한외국인이라는 컨셉을 잡아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외국인이라는 유입층과 상권연계를 자연스럽게 접목시켰던 팀이었습니다.

4팀 춘우디

- **아이디어명** 주차문제 개선
- **실행계획**
  - 보행자 전용 구역 만들기
  - 레트로 풍 결합한 버스 디자인 연계
  - 친환경 주차타워 건설
  - 지역골목 상권 홍보-레트로 거리 만들기
- **기대효과**
  - 친환경 주차타워 건설로 인한 열섬효과 해결, 강수량 유출 감소, 상권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상권 활력 부여, 신규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등

주차 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잡고 아이디어를 내보았던 4팀입니다. 주차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주차타워의 아이디어와 보행자 전용 구역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었습니다. 주차공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만큼 친환경 주차타워 건설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까지 연계하여 최종 목표를 제안했던 팀의 발표였습니다.

5팀 (팀명없음)

- **아이디어명** 관광거리 활성화
- **실행계획**
  - 시청 앞 거리와 피카디리 극장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문화 예술 발전 도모
  - 주말 시청 앞 거리에서 무료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 기회 제공
  - 피카디리 극장에서 층별 테마 공연을 통해 다양한 예술 장르 소개 및 수익 창출
- **기대효과**
  -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 지역 예술인 지원 및 육성
  - 춘천 시민의 문화 생활 향상
  - 명동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문화 예술을 통해 관광거리 활성화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5팀입니다. 과거 춘천의 대표적인 명소였지만 현재는 고요함만이 남아버린 피카디리 극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시청 앞 거리 무료 공연 등을 통한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예술인 육성과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의 활성화까지 연계하는 방법을 발표했던 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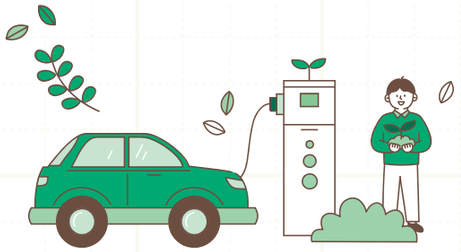
6팀 감자닭 (최우수상)

- **아이디어명** 춘천 관광어플 '감자닭'
- **실행계획**
  - 춘천 관광어플 '감자닭' 런칭
  - 레고랜드와 연계해 춘천 한정판 레고 수령
  - 춘천 명소 스탬프 적립
  - 요선동, 조운동 골목 차량통행 제한
  - 감자닭 어플+조운동 상점 연계 할인
- **기대효과**
  - 녹색교통+원도심 활성화
  - 춘천 관광 촉진
  - 춘천 사회 참여 증가

춘천 관광어플 개발의 아이디어를 냈던 6팀입니다. 춘천 관광어플 '감자닭'의 이름으로 춘천 명소 스탬프 이벤트, 조운동 골목 상권 연계 할인, 지역 레고랜드 연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관광어플을 개발하며 조운동 상권에 한정짓는 것이 아닌 춘천 전체 권역의 참여까지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박 2일간 진행되었던 2024 녹색교통 해커톤! 함께한 청년들의 반짝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들로 가득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춘천이라는 지역, 그중 조운동이라는 동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죠.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각,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본다는 의미가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긴 시간 동안 2024 녹색교통 해커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테라코타 2차 교육 프로그램

흙으로 빚는 세상, 약사는 전시중

글/사진 김준희 코디네이터(약사명동)　　**인 터 뷰** 진순자, 권민진, 김현숙, 손기문

사업명 테라코타 2차 교육 프로그램(흙으로 빚는 세상, 약사는 전시 중)
기　간 24.06.~24.09
장　소 약사리 공유공간 2층
내　용 테라코타 조형예술 체험 및 작품 설치



찌는 듯한 여름 열기로 인해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이 시간, 시원한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바깥 공기 못지않은 열기로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약사리 공유공간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슬그머니 공유공간에 들어가 보니 주민분들이 테라코타 작품을 위해 흙을 반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작품 만들고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죠!

진순자님





안녕하세요. 만들고 있는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새를 많이 만들다가 이번에는 화분을 만들어보고 있어요. 화분 겉에는 새랑 토끼, 꽃을 그려봤답니다.

화분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원래도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지. 만들어서 집에 장식할 생각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테라코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 지루한데,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보니 아주 만족스러워요.



권민진님





안녕하세요. 만들고 있는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컷 양을 만들고 있어요. 3~4주 전에 귀여운 느낌으로 암컷 양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생각보다 정말 귀엽더라고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수컷 양도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 양은 뿔도 달고, 털은 이전보다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예정이에요.

암컷 양이 궁금한걸요?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느꼈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품에 대해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만들고 있으니 즐거워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했다 칭찬도 해주니 분위기도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정말 즐거워요.

테라코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라코타를 하면서 경험과 기법을 배워가는 느낌이에요. 조언도 받고 상황에 맞는 팁도 얻고,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걸 보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어요. 내가 잘 하진 못해도 이렇게 또 해볼 수 있는 취미가 생긴 것 같아 기쁘네요.

김현숙님





안녕하세요. 우물에 붙어있는 고양이가 무척 귀여워요. 혹시 만들고 있는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집마다 있던 우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음식을 만들곤 했죠. 지금은 그 기억이 추억이 되었는데,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제가 좋아해서 옆에 같이 만들었답니다.

고양이 귀엽죠~! 원래도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만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보니 편안하고, 자연 소재라 그런지 만들수록 정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테라코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만들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까 저기 할머니께 물어보니 옛 생각이 나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창의적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아요.



손기문님



와~ 작품이 너무 멋져요. 만들고 있는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명동의 주 포인트가 망대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를 만들고 있는데, 흙을 처음 접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도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주로 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한번 깎아내면 수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흙은 망가져도 다시 붙이고 수정할 수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테라코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니까,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박영숙님 작품



이단비님 작품



조현옥님 작품



테라코타길 표식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저도 함께 즐거운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작품을 소개해 주신 분들 외에도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을 만드는 주민분들의 모습이 마치 작가님 같아서 이번 작품들이 모두 기대가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있는 대부분의 집 담벼락에 주민들이 직접 창작하거나 모사를 통해 제작한 테라코타 작품을 설치하여, 약사명동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라코타 길〉을 표시할 길잡이 표식을 포함해 총 310점의 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있어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첫 시간이 무색하게도 뚝딱!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자들이 여럿 보여 충분히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테라코타 작품이 약사명동 곳곳에 설치되면, 동네의 고유한 정체성과 아름다운 풍경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속 작은 유럽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글 이해인 코디네이터(교동소양)　　사진 이해인·함영진 코디네이터(교동소양)
인터뷰 김로아(아워테이스트 대표), 노경희(몽레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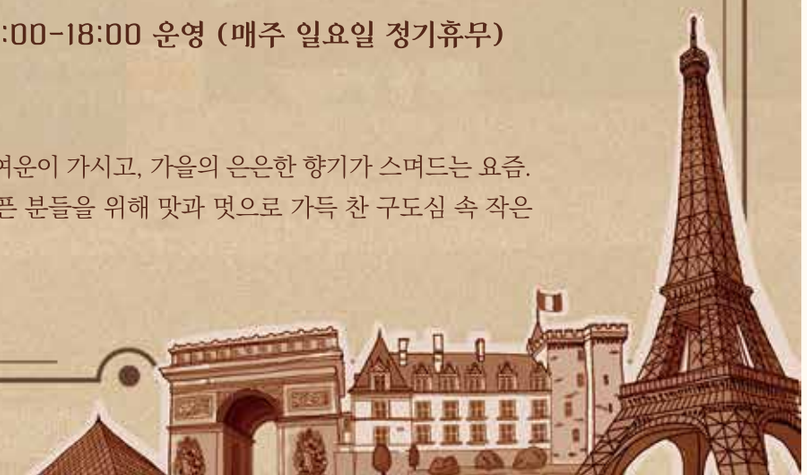
아워테이스트

주 소 춘천시 옥천길 40번길 14, 1층
운 영 예약제로 운영 (캐치테이블 어플 예약)

몽 레 브

주 소 춘천시 옥천길 39
운 영 월-토, 11:00-18:00 운영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의 여운이 가시고, 가을의 은은한 향기가 스며드는 요즘. 어디론가 훌쩍 여행 떠나고픈 분들을 위해 맛과 멋으로 가득 찬 구도심 속 작은 유럽 두 곳을 소개합니다!



아워테이스트

주 소 춘천시 옥천길 40번길 14, 1층　　운 영 예약제로 운영 (캐치테이블 어플 예약)



재즈 음악이 흐르는 아워테이스트 내부 모습



1인 손님을 위한 바 테이블의 모습

안녕하세요, 아워테이스트님! 춘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방문할 정도로 맛과 멋이 가득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읓치읓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춘천의 구도심 옥천동에 문을 열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동의 소담한 골목길에 자리잡고 있는 춘천 최초의 스페인 레스토랑, 아워테이스트를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로아라고 합니다. 마치 스페인 가정집에 초대받은 것처럼 안락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스페인 요리를 서브하고 있어요.

'춘천' 하면 '봄'과 같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 냄새'에 목말라 있었어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간성의 상실'이 느껴지지 않은 곳이 서촌, 부암동, 북촌의 작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해 좋아하는 장소인데, 춘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방인'인 제게 봉의산 자락에 오밀조밀 자리 잡고 있는 옥천동이 유사한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서울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옥천동을 '이국적'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춘천 신도심에 사는 분들은 "이런 동네가 있었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쉬워요. 걷고 싶은 구도심의 매력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든기로는 아워테이스트에 무려 60번이나 재방문한 손님도 계시다고 하던데요! 자꾸 오고 싶게 만드는 아워테이스트의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요리는 한국 요리와 유사한 편이에요. 특히, 쌀 요리가 있다는 점이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일요일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나눠 먹는 '빠에야(paella)'가 스페인의 대표적인 쌀 요리예요. 아워테이스트에서는 해산물, 오징어 먹물, 문어 빠에야 등 총 세 가지의 빠에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빠에야를 먹을 땐 반드시 팬에 눌어붙은 바삭한 누룽지인 '소카랏(socarrat)'까지 함께 긁어먹어야 맛있어요. 최상급 스페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함께 제공되니 신선한 풍미의 조화를 경험하기에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이채로운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좋아하시는 재료를 중심으로 골라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의 대표 쌀 요리이자 아워테이스트의 추천 메뉴인 불보 빠에야(문어빠에야)



고소한 듯 시원한 맛의 망고가스파초와 순쌀국수



아늑한 공간의 아워테이스트 내부 모습

사장님의 설명만으로도 입맛이 절로 돋네요!
마지막으로 아워테이스트가 꿈꾸는 앞으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고 싶어요. 문을 열었을 때 "OO야, 여기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어릴 때 왔던 곳이야"라며 잊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을 추억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

처음부터 '핫 플레이스'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뜨겁게 타올라 한순간 사라지기보다 천천히 일상에 온기를 더하며 위로가 되는 '웜 플레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몽 레 브

주 소 춘천시 옥천길 39 **운 영** 월-토, 11:00-18:00 운영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몽레브 내부 모습

안녕하세요, 몽레브님! 주민분들의 사랑방 같은 카페라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치읓치읓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 춘천의 구도심 옥천동에 문을 열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이상 평범히 직장 생활을 하다 작은 호두파이 전문점을 시작으로 제과·제빵 기술과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좀 더 크게 도전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지금의 몽레브를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레브는 프랑스어로 '나의 꿈'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중 한 번쯤은 카페 창업을 꿈꾸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몽레브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옥천동 주변에 춘천 미술관, 봄내극장 등 예술과 관련된 환경이 제가 희망하던 곳이었어요. 차분하고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에 더해 강원도청, 춘천시청과도 밀접하여 카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동네 주민분들도 편안하게 마실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눈을 사로 잡는 장미에이드



청량한 여름을 담은
몽레브의 추천 음료 장미에이드

그렇다면 예술적인 분위기의 옥천동과 잘 어울리는 몽레브만의 시그니처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몽레브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장미 에이드"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고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만들어 주던 음료로, 아들의 추천으로 메뉴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피는 식용 장미로 만든 청을 사용해 맛과 향이 뛰어나며, 희소성과 독특한 향 덕분에 아로마 효과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뻐 항상 먼저 추천하는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미에이드를 맛본 후 저도 이 음료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몽레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옥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어르신들이 많아요. 옥천동 어르신들이 믹스커피 대신 저희 몽레브의 커피를 즐기시고, 자녀들에게는 카페에 놀러 간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대형카페처럼 시설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고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는 곳에 언제든 쉽게 찾아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결같은 공간으로 오래 기억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아늑한 몽레브 내부 모습



프랑스에 온 듯한 건물과 야외 테라스가 인상적인 몽레브 외관 모습


춘천미술관과 봄내극장이 앞에 있는 몽레브 테라스

춘천 구도심 옥천동에서 만나는 두 특별한 공간 아워테이스트와 몽레브. 스페인 가정식의 따뜻함과 장미 에이드의 향기로운 여운이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낭만 가득한 작은 유럽을 만끽해 보세요. 올가을 맛과 멋이 스며드는 구도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행자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잇는 공간

모두가 하나되는 〈 한삶밥집 〉

글/사진 윤다솜　　인 터 뷰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장 김수창 루도비코 신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23 죽림동성당
문 의 033-243-4545
운 영 매주 월/수/토 11:00~13:00



1920년대부터 약사리 일대에 자리잡은 죽림동 성당. 춘천의 첫 성당이자 천주교 춘천교구 주교좌성당이다. 성당에 올라서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시간도 천천히 흐를 것만 같은 여유로운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 비신자들도 찾는 곳이다. 이곳에서 3년째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 '한삶밥집'은 매주 3번 사랑으로 문을 활짝 연다. 그리고 누구나 '한삶'을 사는 모든이들을 품는다.



한삶밥집 전경

**안녕하세요. 매거진 '치읓치읓'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교구 죽림동 성당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신지 벌써 3년째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한삶밥집'을 소개해주세요.**

한삶밥집은 지난 2022년 5월 15일에 개소하였으며, 식사를 마련하기 어려운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밥집 운영은 매주 월/수/토요일이며 배식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삶밥집'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삶밥집은 고 장익 주교(1994년 12월-2010년 1월까지 춘천교구장 역임)가 1997년 굶주리는 북한을 돕자는 내용의 담화문을 내고 시작한 '한솥밥 한식구'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삶밥집은 장익 주교가 선종 전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 남긴 기금을 종잣돈으로 삼았고, 김주영 주교의 제안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는 2022년 죽림동 성당 일대에 무료급식소 '한삶밥집'을 개소했다





교구장 김주영 주교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하는 모습

**매주 월, 수, 토요일 3번 운영하시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동안 몇분 정도 다녀가셨을까요?**

무료급식소에는 혼자 식사를 하셔야 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스스로 식사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2만여 명(1만9,879명)이 다녀가셨고, 직접 이곳에 오실 수 없는 이웃들에게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 활동과 식사를 돕는 봉사자는 그동안 3,050명이 다녀갔습니다. 모두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천주교 춘천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한삶밥집' 모습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리원을 비롯해서 신자들께서도 좋은일에 동참하신다고요.
고정적으로 함께하시는 봉사자분들도 계시죠?**

2022년도 5월에 급식소를 개원하고는 식사와 도시락 배달을 동시에 준비해 각 본당 제 단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봉사자들의 연령층이 고령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은 직접 밥집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개별 봉사자들이 배달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삶밥집은 총괄담당하고 계시는 전담 수녀님 한 분과 조리파트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조리장이 있습니다. 한삶밥집 봉사자는 일평균 10명 정도이며, 여러 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각 일정에 맞춰 고정적으로 나오셔서 꾸준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단체 같은 경우도 몇몇 본당 빈첸시오(복지단체)에서 오셔서 청소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열고 있으며
식사 마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나눔을 하고 있다

**한삶밥집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후원금이 경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다행히도 저희의 좋은 뜻을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들 덕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식사를 마련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밥을 나누는 것은 한삶밥집이 처음이 아니죠.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말에도 운영을 했다구요.**

밥집운영은 26년 전인 1998년 외환위기 때 굶는 이웃이 늘면서 효자동 성당 빈첸시오회가 전개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노숙인 등에 쌀과 밥, 반찬을 나누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1월에는 지역사회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자 상설 무료급식소인 '한솥밥 나눔의 집'의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구장 장익 주교가 춘천 공설운동장에서 축복식을 집전하였으며, 이 무료급식소는 2008년 11월 급식소 철거로 밥 나눔을 중단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운영했던 8년 동안 29만8,300여명이 급식소를 이용하셨습니다.



한삶밥집 운영

죽림동에 위치한 춘천교구가 춘천의 구도심을
'한삶밥집'이라는 매개로 현실적으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가 종교를 떠나
이 장소, 이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동성당은 춘천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생겨난 성당이자 천주교 춘천교구 주교좌 성당입니다. 이전에는 죽림동 성당 주변에 한국전쟁 후 수녀들이 병원을 짓고 구호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수녀병원으로 불리던 성 골롬반 의원과 수녀원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춘천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의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자 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삶밥집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밥집은 한끼를 해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과 친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주 3일 운영하지만 좀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춘천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밥집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한분한분의 봉사자들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고, 개인과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쌀이며 부식거리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삶밥집이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죽림동성당 식당 환경 개선을 거쳐 '한삶밥집'에는 한 번에 120여명이 식사가 가능하다

3년전 무료급식소 '한삶밥집'을 개소하는 축복식에서 김주영 주교는 '가난한 이, 소외된 이, 병든 이와 한삶을 시작하는 한삶밥집'이라고 소개했다. 한삶을 사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곳은 매주 월, 수,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영된다.

#도서리뷰 #천천히 재생 #도시는 생명체다
#재생도 인생처럼 차근차근, 천천히! #행복에서 시작

천 천 히 재 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이야기

저 자 정석
출 판 메디치 미디어



글 정임정
사 진 출처를 사진 하단에 기재함

“ 도시는 생명체라는 것 ! ”

도시는 생명체다. 도시를 구성하는 작은 마을도 생명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다 생명체다. 여러 도시와 농어촌이 모여 이루는 ‘지역’도 생명체고, 우리의 국토 또한 생명체다. 그리고 이 생명체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이어져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이다.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 도시와 농어촌, 그리고 전체 국토가 한 덩어리인 ‘한 몸 생명체’다.

도시가 생명체라면 ‘도시 재생’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다. 아파하는 도시, 죽어가는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 곧 도시 재생이다.

- 프롤로그 中 -



도시 재생이란 무엇일까? 도시 재생,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천천히 재생’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끌리듯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도시 재생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 재생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범위가 넓다고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재생에 대한 물음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 책은 그 물음표를 하나 하나 느낌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인 것 같다. 그래서 나와 같은 ‘물음표’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 리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 책의 1장과 2장은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되살려야 할 우리 도시가 무엇인지 다룬다. 1960년대 개발시대, 1970~1980년대 재개발의 광풍, 1990년대 개발시대의 잔재와 패러다임의 전환 후 2000~2010년대 개발 역풍 속에 맞이한 재생시대를 순서대로 설명하며, 저자는 도시를 사물화하는 관성에 맞서서 도시를 생명체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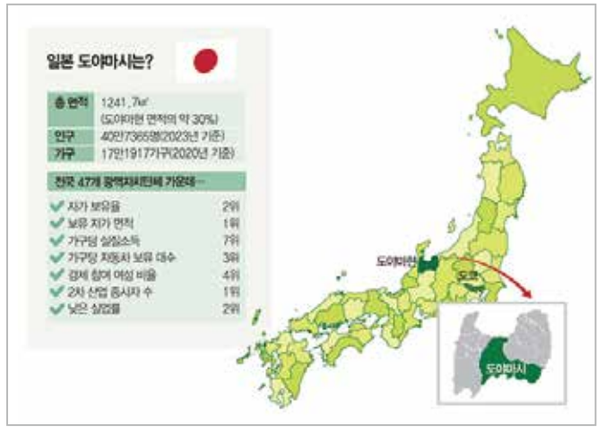


「천천히 재생」_ⓒ 교보문구

인생처럼 재생도 ‘차근차근 천천히’

개발시대의 일단 만들고 공급하는 ‘한꺼번에 빨리빨리’ 방식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방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속가능하지는 못했기에 지금 재생시대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3장과 4장에는 이러한 개발시대 방식에서 벗어나 천천히 사람과 공간을 함께 살리기에 나선 일본과 한국의 사례가 담겨있다.



도야마시 지도_ⓒ 매일경제



도야마시_ⓒ 나무위키

3장의 일본의 다양한 사례 중 '도야마현 도야마시-공짜와 할인으로 만드는 행복도시'의 정책이 인상깊어 소개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정책은 '손주와 외출 지원사업'이다. 조부모가 손주나 증손주를 데리고 오면 시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시행 후 고령자의 외출을 촉진해 건강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미래 의료비 지출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너그러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든 사달라는 대로 사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공헌하게 되었으며, 조부모 세대와 어린 아이들이 교류할 기회를 더 갖게 하여, 수입이 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도야마시 트램_ⓒ 매일경제

두 번째 정책은 '외출정기권 제도'이다. 외출정기권 카드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출퇴근으로 혼잡한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버스나 경전철을 타고 중심시가지에 내리면 요금을 100엔으로 깎아준다는 제도이다.

이 정책 결과 2006년 이래 7년동안 고령자 보행자 숫자가 증가했고, 소비가 증가하여 식당 매출이 늘어 빈 점포 숫자는 줄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 걸음 더 걸을 때마다 0.061엔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모리 마사시(전 도야마시장)_ⓒ 매일경제

두 정책의 공통점은 무료와 할인을 통해 수익이 줄지 않고 더 큰 효과를 얻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도야마시 정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서 인상 깊었는데 모두 도야마시의 '모리 마사시'전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모리 마사시는 해외 도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부지런히 찾아가 배우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2002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도야마시를 혁신해 온 전 시장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이런 적극적인 '모리'전 시장의 실행력과 도야마시 도시 사례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재생의 핵심은 사람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에서 천천히 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현재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재생의 출발점이며,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을 닮은 도시,
행복은 내 손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장은 인구 감소 시대 도시 재생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도시는 사람과 같아서 '개발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픈 도시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 도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망가뜨리지 말고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에서 삶터로, 생각의 무게중심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개발시대의 시대정신이 경쟁과 효율에 기초한 국가나 도시의 성장이었다면, 재생 시대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에 기초한 시민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재생 시대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을 '행복'에서 찾으며 끝을 맺는다.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재생시대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 하다. 「천천히 재생」은 재생의 새로운 관점, 사례들을 살펴보며 재생이라는 키워드의 본질을 돌아보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며 재생시대에 관해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아닐까 싶다.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읓치읓 15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인스타그램〈춘천도시재생〉
https://www.instagram.com/uris_chuncheon/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인스타그램〈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페이스북〈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인스타그램〈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instagram.com/vital_village_
페이스북〈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인스타그램〈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블로그〈조운동네〉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춘천시 City of Chun Cheon 춘천도시재생 소근소근문화마을 약사리 문화마을 봉의산 비탈마을 조운동네 59호마을